“불조혜명 이어 성불 이르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4월 27일 통도사 금강계단 일원서
대종사 47명, 명사 33명 법계 품서
성파 대종사 “삼보 원력 증장 계기”
아미타병원에 1억 4000만원 쾌척

조계종 최고 법계이며 수행의 상징인 대종사와 명사 스님 80명이 탄생했다. 특히 이날 대종사 및 명사 품서를 받은 스님들은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승려복지기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4월 27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불기 2567년 대종사 · 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하고 대종사 47명과 명사 33명 총 80명에게 법계를 품서했다.

대종사 법계 품서를 받은 스님은 운성 · 법혜 · 대운 · 동봉 · 지정 · 혜문 · 성학 · 동욱 · 정휴 · 대성 · 현일 · 무상 · 혜성 · 성운 · 진관 · 양산 · 기연 · 중하 · 성춘 · 태원 · 현문 · 지준 · 효담 · 명신 · 법보 · 향적 · 정우 · 수인 · 도업 · 돈명 · 지환 · 성일 · 정찬 · 종성 · 석구 · 성중 · 보광 · 종림 · 여연 · 법진 · 현묵 · 영진 · 성연 · 영명 · 현전 · 무상 · 청안 스님(승납 순)이다.

명사 법계 품서를 받은 스님은 문수 · 성근 · 일현 · 지우 · 덕운 · 적조 · 순행 · 명신 · 백졸 · 광옥 · 동희 · 진흥 · 태연 · 정원 · 대우 · 경옥 · 일경 · 현종 · 종인 · 수현 · 도혜 · 효경 · 성우 · 현정 · 계호 · 진성 · 희원 · 화정 · 성법 · 종선 · 재호 · 선공 · 도문 스님(승납 순)이다.

품서식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대종사 · 명사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하고 법어를 설했다.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예부터 시행된 법계는 출가 수행자의 수행력과 권위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의 기본”이라며 “종단 비구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는 일평생의 수행 정진과 교화덕행의 결정으로 모든 종도들이 귀의하고 찬탄하는 결정체이다. 이는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며 공경과 선망의 표상”이라고 찬탄했다.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 후 대종사 품서자 스님들과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 후 명사 품서자 스님들과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어 “여러 대종사 · 명사의 출현으로 종도들은 삼보에 대한 원력을 키우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청정승가를 유지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법계증은 대종사를 대표해 무상 스님이, 명사를 대표해 진성 스님이 받았으며 25조 대가사는 정우 스님과 계호 스님이 받았다. 가사를 수여 받은 스님들은 종정예하가 수여한 대가사를 이마에 올려 정대하고 가사를 새롭게 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와 자비의 상징인 여의를 대종사를 대표해 성운 스님에게 봉정했으며, 명사 법계 품수자를 대표해 대우 스님에게 여의를 증정했다.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80인의 대종사, 명사의 탄생을 경축했다. 진우 스님은 “종도들의 사표이신 대종사님과 명사 스님들께서는 종강(宗剛)을 바로 세워 대중이 화합하고 조계종풍이 선양되는 데 일심으로 정진해 오셨다”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법(正法)의 당간지주를 드높여 불조의 혜명이 면면히 계승될 수 있도록 후학을 이끌어 주시기를 양망한다”고 서원했다.

이어 “종단의 소임자들 역시 더욱 발심해 화합하고 정진하는 종단, 혁신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대종사 · 명사 품서 스님들은 품서식에서 승려 노후복지를 위해 5월 3일 정식 개원하는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후원금 1억 4000만 원을 쾌척했다. 후원금은 송천 돈명 대종사, 아산 정우 대종사, 중산 향적 대종사, 중천 성운 대종사, 무심 보광 대종사, 해광 무상 대종사, 이산 현문 대종사와 태연 명사, 효경 명사, 계호 명사, 진성 명사가 전달했다.

품서식에 앞서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승려복지기금을 기부한 스님의 뜻과 승려복지의 중요성을 전했다.

호산 스님은 “개원을 앞두고 대종사, 명사스님께서 큰마음을 내주시어 감사하다. 스님 전문요양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을 나눔으로 열어주셔서 많은 힘이 된다”며 “현재 아미타요양병원은 스님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리모델링 중이다. 오늘 대종사, 명사스님들의 나눔은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이 가능하도록 병원을 희사한 삼천사 주지 중천 성운 대종사는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스님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이라며 “오직 승려복지를 위한 요양병원으로서 의미가 크다. 사회복지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수행자로서 일생일대의 행복”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진우 스님 “강릉 산불 이재민 일상회복 기원”

조계종, 4월 21일 강릉 위로 방문
강릉 산불 피해 성금 2억 원 전달
산불로 전소된 인월사 찾아 위로해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4월 21일 강릉시 산불피해 수습 행정지원실 및 이재민 임시대피소로 활용되고 있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날 위로 방문에는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중앙종회의원 설암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단주를 선물하며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후 대피소 상황실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현재 피해 상황을 브리핑 받은 진우 스님은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 복구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4월 21일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조계종 위문단이 전소 피해를 입은 인월사를 찾아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은사 스님부터 현재까지 45년을 일군 사찰이 전소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총무원과 지역 교구본말사, 전국비구니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인월사는 1979년 한 필지로 시작해 45년동안 현재의 가람을 일궜다. 이제 다시 부처님이 가람을 잘 장엄해보라는 숙제를 주신 것 같다”면서 “다시 이전의 도량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인다는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인월사는 지역에서 포교,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불가에는 ‘도고마성(道高魔盛)’, ‘도가 높으면 마장이 극성을 부린다’는 말이 있다. 인월사가 더 좋은 가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 재범 스님은 종단과 지역 사찰, 전국비구니회에서 연이어 자비의 온정을 전하는 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재범 스님은 “은사 스님부터 현재까지 45년을 일군 사찰이 전소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총무원과 지역 교구본말사, 전국비구니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인월사는 1979년 한 필지로 시작해 45년동안 현재의 가람을 일궜다. 이제 다시 부처님이 가람을 잘 장엄해보라는 숙제를 주신 것 같다”면서 “다시 이전의 도량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인다는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릉=신성민 기자

한중일불교대회 11월 서울서 열린다

한중일불교대표단 4월 25일 예비회의서 합의

11월 6~8일 봉은사 일원서 개최
‘인류 상생 위한 불교 역할’ 주제

한국과 중국, 일본불교의 ‘황금유대’를 확인할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동안 순연되다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4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튤립룸에서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 일정과 주제 등 전반을 확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불교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 봉은사와 인터내셔널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키로 했다. 대회 주제는 ‘인류사회 상생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이며, 부제는 ‘4차 산업시대 불법홍포를 위한 삼국 불교도의 역할’이다. 참가인원은 각국 불교도 100명으로, 총 300여 명 규모다. 대회는 △환영만찬 △법회 평화기원문 △학술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4월 25일 제23차 한중일불교교류우호대회 예비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계는 불교우호교류대회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발원 등을 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중국 주해에서 열린 제22차 대회 이후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2020년 열려야 했던 제23차 한국 대회도 3년 간 순연됐다.

한국교류위원단 단장 도각 스님(종단협 사무총장, 관음종 부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아시아 삼국 불교의 빛나는 황금유대의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성남 봉국사 주지 혜원 스님 임명

4월 26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직할교구 성남 봉국사 신임 주지에 혜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봉국사 주지 혜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봉국사는 성남에서 가장 큰 절이다. 그런 중요한 사찰의 소임을 맡은 만큼 성남지역 전법포교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주지 소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봉국사 주지 혜원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9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국사 총무와 부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을 위한 자료 기증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학교법인광동학원 설립자 운허스님께서는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을 주도하신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으셨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공덕으로 「독립운동 공로포장」을 수상하셨으며, 다수의 학교를 설립하시어 후학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우셨던 교육자셨습니다.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이한 광동학원은, 대강백이시며 구국의 영웅이시고 교육자로서 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신 운허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운허역사자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운허스님의 교육 입국 정신을 계승하고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불교 종립학교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운허스님의 교육과 전법의 위대한 업적을 후학들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자료관에 전시할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증 기간 2023년 4월 ~ 수시로

기증 방법 ※ 우편물일 경우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광동1길 10 광동학원 법인사무국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연락주시면 찾아가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증 장소 학교법인 광동학원 법인사무국(031-570-6611~2)

산하 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광동중학교

기증 자료 1) 운허스님 관련 저서와 글, 유품, 물품,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2) 학교법인 광동학원 관련 저서와 글, 물품,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운허역사자료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초격 합장



해방이 되어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니
학교를 설립하자!
—설립자 운허 큰 스님